

교외 지역 아시아인의 거주지 분리에 관한 연구*

- 뉴욕 웨체스터 사례 -

백 영 기**

Changing Residential Segregation of Asians in Westchester, New York*

Yeong Ki Beck**

요약: 최근 아시아인 인구의 교외화 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취락 패턴은 과거 이민자들의 격리 과정과는 다른 궤도를 따르며, 또한 소수민족 집단이 집중되는 주거 입지도 상이하여 교외 지역에서 복잡한 민족 모자이크가 재현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뉴욕 시 외곽에 위치한 웨체스터 카운티의 아시아인 소수민족의 거주지 패턴을 조사하였다. 이 지역의 주요 아시아인 민족인 인도인, 중국인, 필리핀인, 일본인, 한국인 등 5개 주요 집단의 거주지 패턴을 2000년과 2010년 센서스 인구 자료에 기초한 지도화와 병행하여 격리 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 지역 아시아인 민족 집단의 거주지 분리 현상은 분산된 집중화로 특징을 지을 수 있었다. 또한 각 민족 집단의 인구가 집중하는 근린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주요어: 아시아인 소수민족, 거주지 패턴, 격리, 거주지 분리, 주거 집중, 교외화

Abstract: Recent studies on Asian suburbanization suggest that their settlement patterns do not confirm to those of earlier migrant streams, and that different residential patterns of Asian ethnic minority groups have created a complex ethnic mosaic in suburban areas. This paper examines the extent to which residential patterns of main Asian minority groups have changed in Westchester, where is one of suburban counties around New York City. With mapping base on Census of Population data in 2000 and 2010 years, the residential patterns of five Asian groups (Asian Indians, Chinese, Filipinos, Japanese, and Koreans) are analyzed through the indices of segregation. The residential segregation geography of the Asian ethnic groups is characterized by dispersed concentration. There is a difference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ethnic neighborhoods in which Asian minority groups are residentially concentrated.

Key Words: Asian ethnic minority, residential pattern, residential segregation, residential concentration, suburbanization.

1. 머리말

아시아인들이 미국에 이주해 온 역사는 꽤 오래 되지만 미국 내 아시아인의 본격적 증가는 1965년 이민법이 개정된 이후로¹⁾, 이때부터 아시아 지역에서 의료 전문가, 엔지니어, 기술자, 컴퓨터 과학자 등 전문직 이민자가 많이 유입되면서 오늘날에는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이민 인구 집단이 되었다(Frazier, 2010). 1970년경에 아시아계 미국인은 1백5십만명을 겨우 상회하여 전체 인구의 1%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였지만, 그 이후 계속 증가하여 1980년 약 3백7십만명, 1990년 7백2십만명, 2000년 1천2백3십만명, 2010년 1천4백7십만명으로 미국 전체 인구의 약 4.8%를 차지하게 되었다

(US Census, 2010).

전통적으로 미국 내 아시아인은 이민자들이 유입되는 관문 대도시의 중심도시에 집중되었지만, 1980년대 이후 아시아인 상당수가 중심도시를 벗어나 교외 지역에서 거주한다(Iceland *et al.* 2002; Hoeffel *et al.* 2012). 또한, 지난 20년전부터 아시아인 집단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교외가 미국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애틀랜타, 리버사이드-샌버너디노, 달라스, 미들섹스-서머셋(뉴저지), 휴스턴 등의 대도시 교외 지역이 최근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O'Hare *et al.* 1994; Iceland, 2002). 미국 전역으로 아시아인 거주지가 도시 외곽으로 확산되면서 각 지역에 다양한 아시아인 소수민족 집단이 불균등하게 출현하게 되었다. 미국

* 이 논문은 2016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ykbeck@jbn.ac.kr)

통계국에 따르면 1980년경에 미국 내 20개 상이한 아시아인 민족 집단이 존립하였고,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갖는 집단은 2000년 기준으로 중국인이 단연 1위이고, 이어서 필리핀인, 인도인, 한국인, 월남인, 일본인 등으로 순위가 이어진다(Barnes *et al.* 2002). 그렇지만 이들 주요 아시아인 민족 집단은 수많은 대도시의 교외 지역에서 각기 다른 비중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인 집단은 LA-롱 비치 교외에서 전체 아시아인의 1/3을 차지하지만, 호놀룰루 교외에서는 7%에 불과하고, 일본인 집단 역시 호놀룰루 교외에서 전체 아시아인의 1/3을 이루지만, 워싱턴디시 교외에서는 단지 4%를 차지한다. 한국인 집단은 워싱턴디시 교외에서 아시아인 전체의 21%를 이루지만, 호놀룰루 교외에는 단지 3%에 불과하다(O'Hare *et al.* 1994).

이처럼 대도시 교외를 거주지로 선호하는 아시아인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교외화 과정에서 이들의 주거 입지 경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나타난 아시아인 거주지 패턴과 주거 격리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아시아인을 흑인과 함께 소수민족 집단에 포함시켜 아시아인의 교외화를 이들과 유사한 공간동화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Alba and Logan, 1991; Alba *et al.* 1999; Massey & Denton, 1987). 그러나 미국은 물론이고 환태평양 영예권 도시에서 아시아인의 거주지 패턴에 대한 최근 연구는 과거 유럽 이민자나 흑인이 보였던 인종·민족적 주거 격리 과정과는 다른 궤도를 따르며 훨씬 다양한 주거 모자이크를 재현한다고 제의한다(Alba *et al.* 1999; Skop, 2005; Johnston *et al.* 2008; Munoz, 2010). 전통적으로 동화이론에 따르면 새로운 이민자는 일정한 적응 과정을 거쳐 문화적 동화를 이룬 후에 초기 정착지를 떠나 중심도시 밖으로 또는 교외로 이주하게 되어, 이들의 교외화는 동화의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Massey, 1985). 그러나 최근 아시아에서 오는 이민자들 상당수는 숙련 기술을 보유하고, 영어 구사력도 있고, 상대적으로 풍요하기 때문에 중심도시의 고밀도, 낡고 값이 싼 주택이 많은 지역을 그들의 새로운 정착지로 선호할 필요가 없으며, 곧바로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교외의 덜 밀집한 근린 지역으로 이주한다는

것이다(O'Hare *et al.* 1994; Alba *et al.* 1999; Logan *et al.* 2002; Johnston *et al.* 2008). 중심도시에서 일정한 동화 기간을 지난 후에 밖으로 이주하였던 과거 이민자들과는 달리, 최근의 이민자들은 중심도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자신들이 원하는 교외에 이주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Li, 1998). 일반적으로 교외의 아시아인 집단이 중심 도시에 살고 있는 아시아인 집단보다 풍요롭고 교육과 소득 수준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새로운 이민자 물결의 영향이 반영되었다는 것이다(O'Hare *et al.* 1994).

대도시 교외 지역에서 소수민족의 취락 패턴을 면밀하게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이들 인구는 교외 전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기 보다는 특정 근린 주변으로 모이면서 분산된 집중을 보인다는 것이다(Li, 1998; Peach, 2002; Johnston *et al.* 2008). 일반적으로 이들은 도심 주변의 내부도시에서 외곽으로 이동하면서 이 주변 근린에 새로운 주거 클러스터를 이룬다는 것이다. 소수민족이 집중하는 교외 지역은 자신들 민족 집단만이 집중된 상대적으로 배타적인 주거공동체가 아니라 다른 민족 집단들, 특히 백인이 많이 사는 근린에서 흔히 발견되며, 이곳에서 이들은 다수는 아니라는 것이다. Li(1998)는 이처럼 교외 지역에서 소수민족이 군집되어 있는 비교적 풍요로운 공동체를 민족교외지(ethno-burb)라 부르고, 여기서 소수민족은 원활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적절한 일자리와 주택 등을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곳에서 소수민족은 자신들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교외 지역에서 소수민족은 다수 인구의 주거 분포와 다른 주거 분포를 형성하며, 새로운 사회적 및 공간적 격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중심지역 외곽에서 발견되는 특정한 소수민족 집단의 비중이 매우 높은 클러스터는 교외화 과정의 결과로 출현하는 민족교외지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Li, 1998).

소수민족 집단에 속한 아시아인의 교외화 과정은 공간동화와 장소층화 모델의 증거를 분명히 보여주지만, 출신국가별로 상이한 거주지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다(정수열, 2008; Alba *et al.* 1991; Logan *et al.* 2002). 아시아인 내에서 민족에 따라

거주지 패턴의 변이는 이들 집단이 각기 다른 교외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도시에서의 주거 격리를 다루는 대부분 연구처럼 아시아인을 소수민족 내 큰 범주의 하나로 묶는 경우 민족간 상이한 경험을 간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이한 민족간 거주지 패턴의 변이가 소득이나 주택시장의 특성에 따라 나타날 수 있으며, 동화 정도에 관계없이 거주지를 선택하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것이다(Brown and Chung, 2008). 예를 들어 미국 내 일본인 상당수는. 영어에 능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외에 사는 것을 선호한다고 알려진다(Logan *et al.* 2002). 이러한 이례적 행동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체계적 증거를 찾기란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현상은 교외화 과정에서 변이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아시아인과 같은 통합적 범주에 의해 결코 포착할 수 없는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아시아계 인구는 20개 이상의 다양한 민족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에 따라 상이한 비중을 보이며, 도시 내에서도 각기 다른 교외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논문은 대도시의 교외지역에서 상이한 아시아인 민족 집단의 거주지 패턴을 조사 분석하여, 재현되는 민족적 거주지 분리와 다양성을 보다 세밀하게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아시아인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뉴욕 시 북부의 교외지역인 웨체스터 카운티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지난 10년간 이 지역 주요 아시아인 집단을 출신 국적에 따라 구분하여 이들 각각의 거주지 패턴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조사는 미국 대도시 교외지역에서 아시아계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2000년 이후를 선택하여, 2000년과 2010년 센서스 인구자료를 이용하였다²⁾. 논문의 구성은 다음 장에서 아시아인 교외화 과정에서 최근 중요시되는 거주지 분리의 이론적 쟁점을 검토하고, 이어서 지난 10년 동안 사례지역에 살고 있는 주요 아시아인 민족 집단 각각의 거주지 분포를 지도를 이용하여 조사한다. 그리고, 각 집단간 거주지 집중과 분리 수준을 상이지수와 고안한 측정 방법에 의해 비교하고, 각 민족 집단의 거주지 분리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근린을 구별하였다. 여기서 발견된 개별 민족의 거

주지 분리 수준과 근린 특성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고, 마지막 결론을 맺는다.

2. 아시아인 교외화 과정에 대한 고찰

도시 생태학적 모델에 따르면 교외화는 공간동화 과정의 주요 단계로 인식되었다(Burgess, 1925). 새로운 이민자들이 낮은 땅에 오면 관문 도시의 중심도시에 정착하지만, 그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져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주변 주거환경에 익숙해지면 초기 적응 과정에서 거주하던 민족 집단거주지를 벗어나 향상된 생활환경을 찾게 된다. 소수민족의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집단거주지를 떠나 그 지역의 주류 인구가 다수 거주하는 공동체, 대개는 교외에 위치한 곳으로 이주하면서 공간적 동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경험적으로 분석한 공간동화 모델에 따르면 주로 중심도심에 위치한 민족의 집단거주지는 사슬 이주, 민족 계승, 민족 기구 구축 등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지만, 동화된 소수 이민자들이 선호하는 곳은 교외지역에 조성된 쾌적한 근린 지역이라는 것이다(Massey, 1985; Massey and Denton, 1987). 따라서 공간동화 과정의 최종 결과는 소수민족과 주류 인구 간에 주거특성에서의 불평등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동화 과정을 최근 이민자 집단인 아시아계 인구에게 적용하는 경우에도 역시 초기 적응 과정 단계에서는 주거 집중이 출현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경험적 증거에 따르면 최근 일부 아시아 이민자들은 이민과 동시에 곧바로 교외에 정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한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정보통신 및 교통 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적 네트워크가 쉽게 구축되면서 인종, 민족적 주거 집중의 필요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변화에서 특히 새로운 이민자들이 전문 지식과 숙련도를 지니고, 영어 구사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경우 전문직이나 사업 기회를 추구하면서 곧바로 좋은 환경의 교외 지역에 거주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문화적 동화가 되기도 전에 주거지의 상향여과(filtering up)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Allen and Turner, 1996; Alba *et al.* 1999; Logan *et al.* 2002). 결

과적으로 최근 이민자들의 주거선택과 주거입지의 특성에 대해 공간동화 과정에 의한 설명은 충분하지 못하다.

공간적 동화 여부에 관계없이 교외의 주거입지는 교외 주택시장의 특성과 그곳에 진입할 수 있는 이주자의 소득에 근거한 사회경제적 수준에 의존할 것이다(Alba et al. 1999). 주택관련 차별화 연구에 따르면 인종·민족 고정관념에 기반을 둔 구조적 장벽이 주택시장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보인다(Friedman et al. 2005; Brown and Chung, 2008; Velez, 2009). 주택 구매 및 임대 시장에서 주거입지를 탐색하면서 백인은 다른 인종이나 민족보다 일반적으로 보다 호의적인 대우를 받으며, 주택시장의 다른 부분에서도, 예를 들어 주택자금 대출 시장에서도 백인은 흑인을 비롯한 소수민족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업자에 의한 조정, 배타적 지구제, 근린의 적대감, 불공정한 주택담보부대출 등과 같은 주택시장에서의 차별적 관행에 의한 소수민족 집단의 이동성에 미치는 불이익은 아시아인의 주거입지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정수열, 2008; Alba et al. 1999). 주택시장에서의 불이익이 실행되는 경우 소수민족 집단의 구성원들이 교외지역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대가를 필요로 할 것이다(Houston, 2010). 따라서 이들의 교외화 과정을 결정하는 소득과 기타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주류 인구의 교외화에서보다 좀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가족이나 가구 구성에 관한 지표는 이들 집단의 교외화에 주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게 된다. 또한 소수민족 집단이 받는 주택 불이익은 교외지역의 주택재고가 주로 자가점유 주택으로 이루어진 경우 더욱 클 것이며,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가증될 것이다.

그리고, 소수민족 주택시장에 존재하는 구조적 제한은 백인의 주거 선호에 의해 촉진되거나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인종과 민족성에 따라 선호하는 이상적 주거근린으로 백인은 타인종이나 민족에 비해 자신들의 배경을 갖는 근린을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백인이 회피하는 타집단(out-group)으로 흑인이 첫 번째였고, 아시아인에 대한 회피가 가장 적었다(Charles, 2000). 또한 흑인이 집중된 근린이 아시아인이 가장 선호하지 않

는 주거입지로 나타났다. 아시아인이 집중된 교외 지역의 민족교외지는 동일 민족을 선호하여 형성되는 일종의 민족공동체(ethnic community)라는 것이다. 거주지 선택에서 인종 및 민족에 따른 선호가 크게 작용하면 소수민족의 주거 격리는 감소하지 않고, 다민족 혼합거주지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인종 및 민족에 따른 거주지 패턴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대도시 지역에서 소수민족의 거주지 분리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정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정수열, 2008; Massey and Denton, 1987; Iceland, 2004).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Massey and Denton(1987) 연구는 상이 지수를 이용하여 백인에 대한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인 집단의 격리를 1970년과 1980년 두 기간에 조사하였다. 그 결과 흑인이 격리가 가장 심하게 나타났다고, 아시아인들이 격리 정도가 가장 적었지만, 세 인구 집단 모두 백인과의 격리 수준이 감소하였다. 이처럼 소수민족의 주거 격리가 감소하는 추세는 주거입지 선택에 인종과 민족성의 영향이 줄어들면서, 구조적 면을 강조하는 총화론적 설명의 한계를 반영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후 연구들은 흑인의 격리는 감소하지만 히스패닉과 아시아인의 격리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을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1970년대 이후 아시아인과 히스패닉의 이민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들의 이주가 교외의 집단거주지에 집중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으로 교육 수준이 높고 숙련된 기술과 자본이 있는 아시아로부터 이주민들이 교외의 주거 지역에 정착하여 나타나는 민족교외지일지 모른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간동화 모델에 의해 저숙련 집단의 주거집중의 결과로 나타나는 집단거주지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아시아인의 교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주지 패턴은 공간적 동화와 구조적 차원이 모두 반영되어 나타날 것이다. 어느 하나 단독의 모델로 복잡한 과정의 설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이들 모델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은 교외화 과정에서 아시아인 소수민족 집단 내 변이를 철저히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러 이론적 설명의 적합성은 집단에 따라 다를 것이다. 또한 교외에 거주하는 아시아인의 생계 방

법에 따른 주거 상황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외 아시아인 인구의 직업은 크게 3범주로 구분된다. 첫째, 소규모 자영업이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이들은 영어 사용이 능숙하지 못하며, 가족 노동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의사, 치과 의사, 변호사, 부동산업자, 보험업자 등의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일터는 이곳 교외이거나 중심도시에 있어 통근을 하는 사람들이다. 또 다른 부류는 영어에 능숙하며 미국 문화에 동화될 준비가 되어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교육에 관심을 갖고 최고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외를 선호한다. 따라서 상이한 주거 상황에 따른 교외화 과정에 차별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Alba et al. 1999).

또한 이주 가족이나 가구 상태, 예를 들면 학교에 다녀야 하는 자녀의 존재에 따라 교외화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족 수명 주기에 의하면 결혼한 부부나 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우 여유로운 생활과 교육 여건을 좋은 교외 지역을 선호하게 되며, 이들의 높은 가구 소득이 교외 거주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다. 예를 들어 아시아계 인구의 교외화는 각 민족 집단의 평균 소득 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음을 발견한다(Massey and Denton, 1987). 따라서 상이한 민족별 주거 패턴이 소득에 따라 변이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얻는 것이다. 부유한 인구 집단이 대도시 교외지역의 특정 근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빈곤한 근린에서 사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간동화모델에서 강조하는 언어 능력은 크게 교외화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증거가 나타난다(Alba et al. 1999).

3. 웨체스터의 아시아인 집단 거주지 패턴

지난 10년 동안(2000년~2010년) 뉴욕 대도시 권역에 거주하는 아시아인은 전체 인구 가운데 약 7.8%에서 10.5%로 거의 40% 정도 증가하였고, 이 가운데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인구가 뉴욕 시에 거주하고 나머지가 뉴욕 시 외곽의 교외 지역에 살고 있다: 뉴욕 시 교외지역 아시아인의 비중은 2000년 41.5%, 2010년 44.4%를 보인다(표 1). 뉴욕 시 북부에 인접한 웨체스터 카운티에 거주하는 아시아인은 전체 인구 가운데 2000년 4.7%에서 2010년에 5.7%로 약 25% 증가하여 지난 10년 동안 아주 빠르게 증가한 인구집단이다. 하지만 뉴욕 대도시권의 다른 교외 지역에 비해서는 아시아인의 증가 속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지역이 주변의 다른 교외 지역에 비해 아시아인 인구 증가율이 낮은 것은 이 지역의 높은 주거비용, 특히 재산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일지 모른다(백영기, 2011). 하지만 이 지역의 좋은 주거환경과 높은 수준의 탁월한 교육기관이 이 카운티를 뉴욕 시 교외 지역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주거 지역의 하나로 만들고 있다(Scott, 1995).

표 1. 뉴욕 메트로, 뉴욕 시, 웨체스터 지역의 소수민족 인구 변화

	뉴욕 메트로			뉴욕 시			웨체스터 카운티		
	2000년 (%)	2010년 (%)	변화율	2000년 (%)	2010년 (%)	변화율	2000년 (%)	2010년 (%)	변화율
백인	10,810,090 (63.0)	10,682,545 (60.2)	-1.2	3,576,385 (47.0)	3,597,341 (45.8)	0.6	658,858 (73.6)	646,471 (70.3)	-1.9
흑인	3,315,055 (19.3)	3,348,312 (18.9)	1.0	2,129,762 (28.0)	2,088,510 (26.6)	-1.9	131,132 (14.6)	138,118 (15.0)	5.3
아시아인	1,345,314 (7.8)	1,868,790 (10.5)	38.9	787,047 (10.3)	1,038,388 (13.2)	31.9	41,855 (4.7)	52,523 (5.7)	25.5
-인도인	369,395 (2.2)	522,263 (2.9)	41.4	170,899 (2.2)	192,209 (2.4)	12.5	14,279 (1.6)	18,082 (2.0)	26.6
-중국인	481,666 (2.8)	648,435 (3.7)	34.6	361,531 (4.7)	487,532 (6.2)	34.9	7,801 (0.9)	10,628 (1.2)	36.2
-필리핀인	148,885 (0.9)	187,243 (1.1)	25.8	54,993 (0.7)	67,292 (0.9)	22.4	5,006 (0.6)	6,605 (0.7)	31.9
-일본인	44,844 (0.3)	44,050 (0.2)	-1.8	22,636 (0.3)	24,277 (0.3)	7.2	6,837 (0.8)	5,867 (0.6)	-14.2
-한국인	162,320 (0.9)	207,285 (1.2)	27.7	86,473 (1.1)	96,741 (1.2)	11.9	4,519 (0.5)	5,610 (0.6)	24.1
기타인종	1,678,296 (9.8)	1,848,312 (10.4)	10.1	1,121,125 (14.7)	1,124,993 (14.3)	0.3	63,453 (7.1)	82,048 (8.9)	29.3
합계	17,148,755 (100)	17,747,959 (100)	3.5	7,614,319	7,849,232	3.1	895,298	919,160	2.7

출처: Bureau of the Census, 2000, 2010, Census of Population and Hous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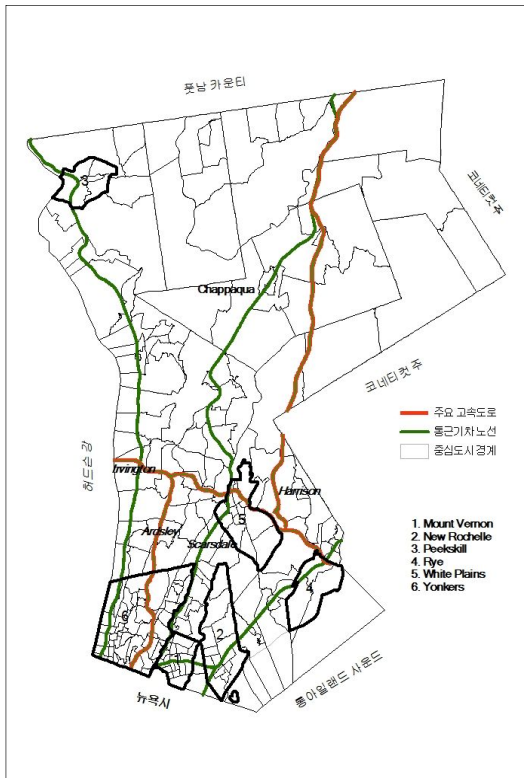


그림 1. 웨체스터 카운티의 중심도시와 주요 교통로

웨체스터는 45개 지방정부 단위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6개 중심도시가 있고, 나머지 자치시 가운데 미국 전역에서 교육환경이 최고이거나 학력 수준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Bronxville, Larchmont, Scarsdale 등이 있다(Scott, 1995). 뉴욕 시는 고용 기회와 여가 및 고급서비스를 이 지역에 제공하는 최고의 중심도시로, 카운티를 통과하는 세 개의 기차 노선과 주요 고속도로는 뉴욕 시의 중심과 연결된다(그림 1).

1) 지도화

카운티 내 아시아인의 대표적 소수민족 집단을 출신 국가별 인구수로 살펴보면, 2010년 기준으로 인구 규모가 가장 큰 집단은 인도인으로 카운티 전체 인구의 2% 이었고, 전체 인구의 1.2%에 이르는 중국인이 다음이었고, 이어서 필리핀인, 일본인, 한국인 순이었다(표 1). 2000년에 인도인은 두 번째 인구 규모인 중국인의 거의 두 배였지만,

2010년까지 10년 동안 중국인이 빠르게 증가하여 두 민족 인구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편 일본인은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15% 정도 감소하여, 2000년에는 필리핀인 수보다 훨씬 많았지만 2010년에는 적어져서 한국인과 거의 비슷한 인구수를 보이고 있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카운티에 거주하는 대표적 아시아인 집단 5개의 거주지 분포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지도화를 통해 조사하였다. 2000년 5개 주요 집단의 취락 분포와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그 분포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 2>부터 <그림 11>까지를 비교해 보면 이들 5개 주요 아시아인 집단이 주로 살고 있는 장소가 결코 같지 않음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2000년 인도인 집단은 뉴욕 시에 가까운 카운티 남서부에 편중된 분포를 보이지만, 다른 아시아인 집단보다 훨씬 수적으로 우세하여 전체 지역에 꽤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다(그림 2). 지난 10년 동안 인구 증가율도 높아 지역 전역으로 분산된 거주지 패턴을 분명히 보이고 있으며, 흑인을 포함해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남서부의 Yonkers, New Rochelle 시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그림 3). 특히 인구 비중이 높거나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근린인 통근기차노선과 주요 간선도로 주변을 따라서 나타나는 것은 인도인 상당수가 뉴욕 시에 직장을 두고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중국인은 2000년에 인도인 수의 절반에 불과하고 일본인 수와 비슷했지만 중국인 취락은 카운티 남서부에 일부 집중을 보이면서 인도인의 분포와 비슷하게 전역으로 분산되어 있다(그림 4). 단지 인구 규모가 작아서 인도인에 비해 근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중국인은 흑인이 많은 카운티 내 중심도시보다는 그 주변 지역에 분산되어 있으며, 주거 및 교육환경이 좋은 Scarsdale, Ardsley, Chappaqua에 집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인은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아시아인 집단으로, 그 증가의 상당수가 새로운 이민자들에 의해 발생되면서 이들의 이주가 카운티 전역으로 거주지 패턴의 분산에 기여하였다고 추측한다(그림 5).

2000년에 중국인 수의 삼분의 2에 불과하였던 필리핀은 그 수가 적어서 인도인이나 중국인 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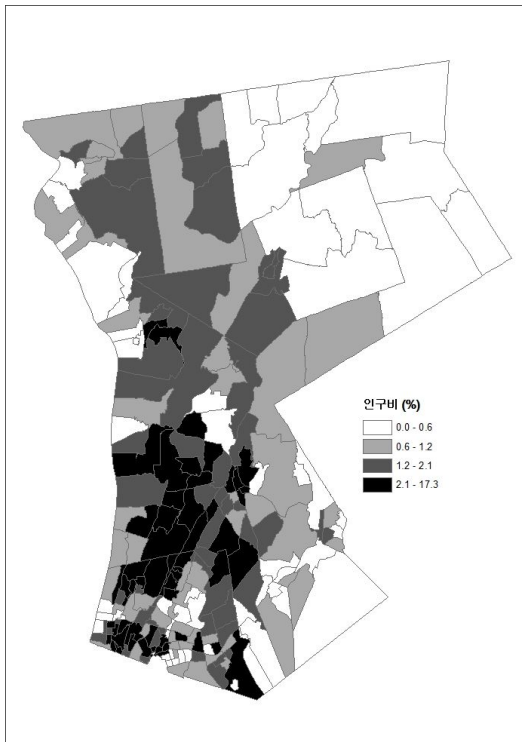


그림 2. 인도인 인구분포, 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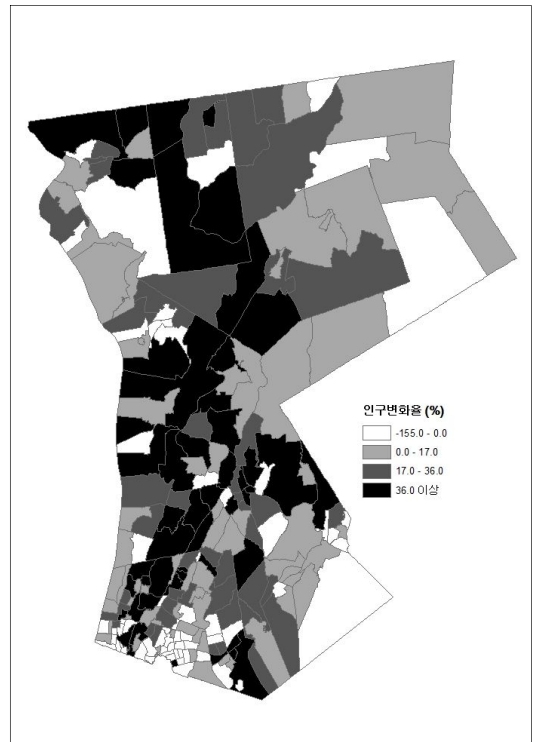


그림 3. 인도인 인구분포 변화, 2000~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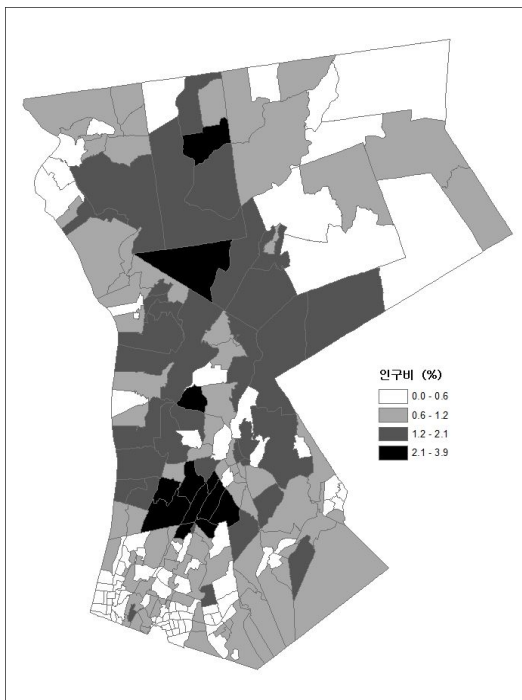


그림 4. 중국인 인구분포, 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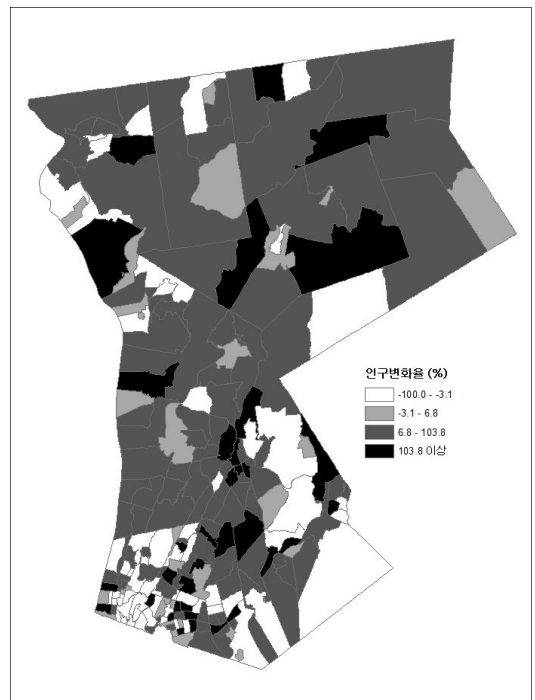


그림 5. 중국인 인구분포 변화, 2000~2010년

분포처럼 분산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들 인구가 집중된 트랙의 수도 아주 적었고 그 집중 수준도 낮았다(그림 6). 이러한 패턴은 5개 소수민족 집단 가운데 필리핀인이 교외 지역에서 백인 공동체에 가장 잘 섞이고 있음을 보인다고 여겨진다. 필리핀은 남서부 Yonkers 시와 White Plains 시에 인구비율이 높은 트랙이 나타났고, 통근기차노선 주변에 있는 트랙 일부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인구 증가 속도가 중국인에 이어 두 번째인 필리핀 역시 새로운 이민자에 의한 인구 증가가 크게 기여하면서 카운티 북부 지역으로 분산되었다고 여겨진다(그림 7). 하지만 중국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과 숙련 기술을 보유한 이주자가 많은 필리핀인 집단의 새로운 정착지는 중국인 거주지와는 동일하지 않은 것이다.

일본인은 2000년에는 그 수가 중국인과 거의 비슷하였지만 카운티 북부에는 거의 거주하지 않고, 남부의 일부 지역 Scarsdale 주변과 동남부의 Rye 시 주변에서 매우 집중된 패턴을 보인다(그림 8). 인구수에 비해 꽤 높은 집중 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서 일본인은 자신들 민족이 사는 곳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절대적 수가 감소한 일본인은 기존 주요 거주 지역에서의 인구비율이 낮아졌지만 그럼에도 새로운 거주지역이 카운티 북부에 다수 출현하였다(그림 9). 이러한 거주지 패턴의 변화는 인구가 집중되었던 기존 주거지에서 카운티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인구가 많이 발생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또한 카운티 북부 지역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트랙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이들 트랙 대부분이 2000년 인구 비율이 아주 낮았기 때문에 변화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아시아인 주요 민족 집단에서 인구수가 가장 적은 한국인은 2000년에는 일본인처럼 일부 지역에만 거주하고 카운티 북부에서 거의 살고 있지 않았다. 또한 한국인의 인구 비중이 높은 트랙의 수도 적게 나타났고, 그 집중 수준도 그리 높지 않아 일본인에 비해서 거주지 분리가 뚜렷하지 않았다(그림 10). 2000년에 한국인 인구가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은 카운티에서 최고의 학군이 있는 Ardsley와 Edgemont, Chappaqua 주변이었다. 한

국인 역시 지난 10년 사이 인구가 증가하면서 카운티 전역으로 거주지가 분산하고 있다(그림 11). 특히 남부의 Rye 시 주변과 중부의 Pleasantville 주변에서 취락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아시아인의 주요 거주지는 이전에 집중된 지역의 일부에서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인구비율이 낮았던 카운티 북부의 전역으로 분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공간적 집중과 분산

지금까지 아시아인 집단의 거주지 패턴에 대한 지도 분석은 주요 집단간 거주지 분리를 측정하여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거주지 분포의 집중과 분산 정도를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방법이 요구되었다. 전통적으로 거주지 분리는 다음의 5가지 공간적 차원에서 측정하고 있다: 균등성, 고립, 군집화, 집중, 중심화(Massey and Denton, 1987). 하지만 최근 일부 학자들은 이 5가지 차원을 단순화 시켜 공간적 균등성(공간적 군집화), 공간적 노출(공간적 고립) 두 가지 공간적 차원으로 줄여서 분석할 수 있다고 한다(Reardon and O'Sullivan, 2004). 특정 집단의 공간적 노출이나 고립을 측정하는 고립지수는 분석 집단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집단간 인구 비중의 차가 큰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Allen and Turner, 2005; Iceland, 2013). 상이지수는 두 집단의 거주지가 공간적으로 얼마나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는가를 비교하는 척도로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된다³⁾. 상이지수나 고립지수 모두 한번에 두 집단간 격리를 비교하는 한계는 있지만, 상이지수는 집단의 상대적 크기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는 상이지수를 이용하여 주요 인종 집단과 아시아인 집단 간, 또한 아시아인 집단 내 각 쌍의 거주지 분리의 변이를 조사하였다(표 2). 이 지수 값은 두 집단 간 주거 격리가 전혀 없는 경우 0의 값부터 완전하게 격리될 때 100의 값까지 범위에서 표시된다. 일반적으로 숫자가 적은 그룹일 경우 분리된 주거를 보이므로, 한국인은 다른 집단에 대해 전반적으로 낮은 상이지수를 보인다. 하지만 인구가 적은 집단에 속하는 일본인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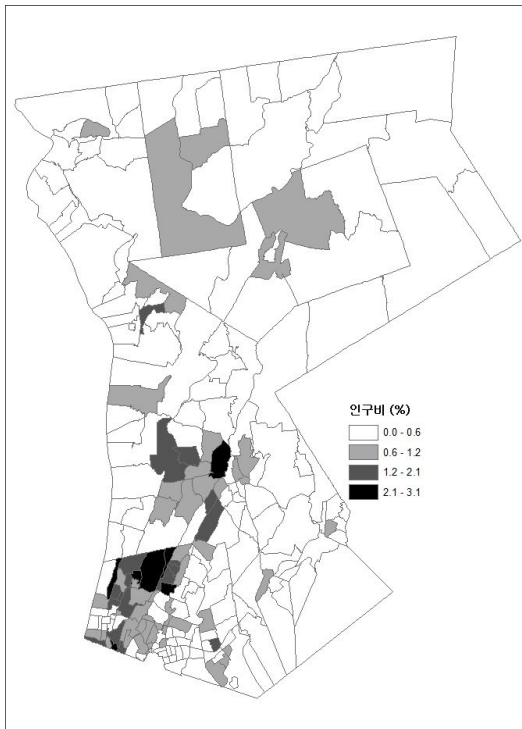


그림 6. 필리핀인 인구분포, 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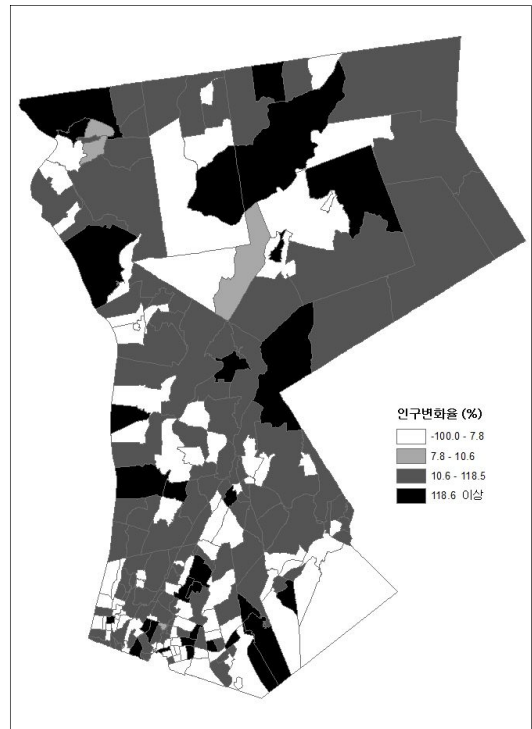


그림 7. 필리핀인 인구분포 변화, 2000~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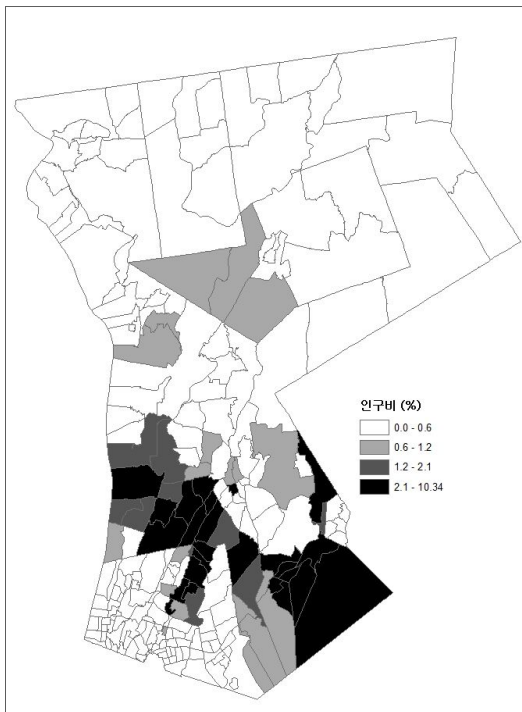


그림 8. 일본인 인구분포, 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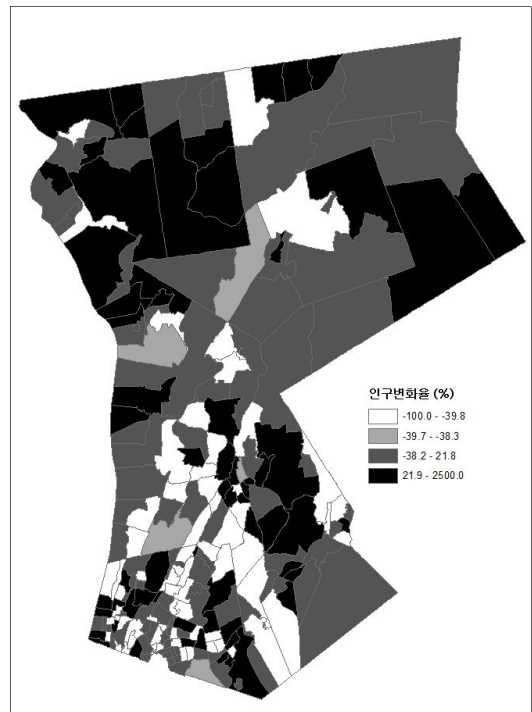


그림 9. 일본인 인구분포 변화, 2000~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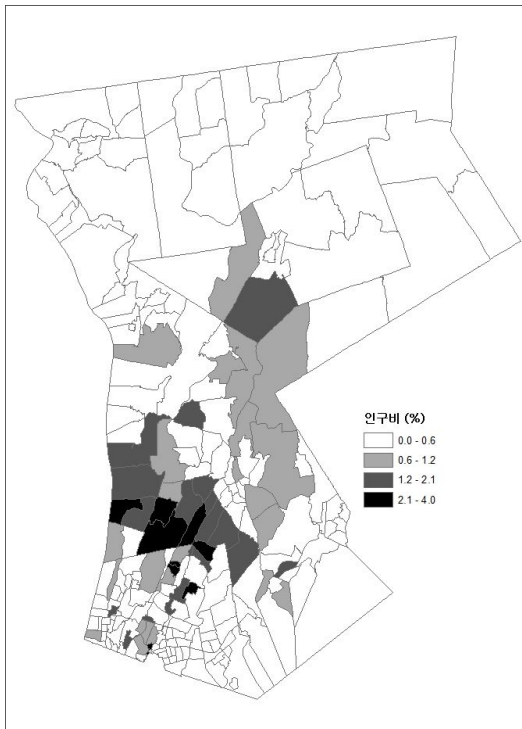


그림 10. 한국인 인구분포, 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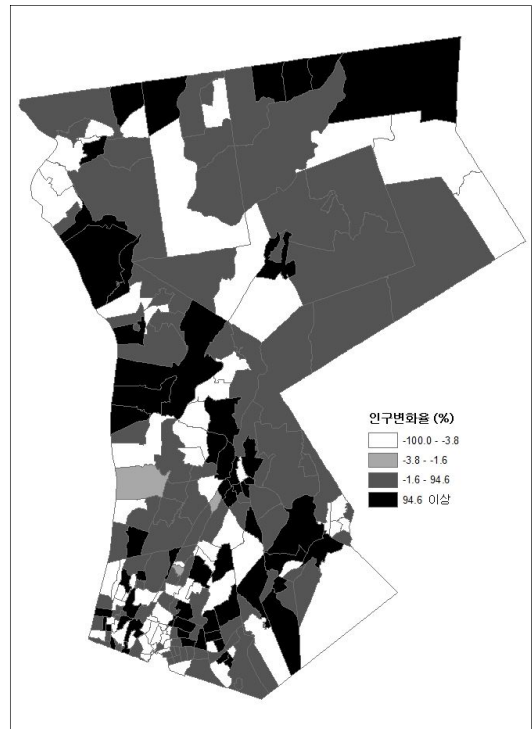


그림 11. 한국인 인구분포 변화, 2000~2010년

는 예외적으로 백인을 포함해 대부분의 다른 집단과 가장 높은 격리를 보이고 있다. 흑인에 대해 한국인은 66.0이고, 일본인은 77.5의 상이지수 값이 의미하는 것은, 흑인과 같은 지리적 분포를 보려면 한국인 66%와 일본인 77.5%가 이동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흑인은 인구가 가장 많은 소수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백인은 물론이고 아시아인 집단 모두와 높은 격리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인 집단은 모두 흑인과 격리는 뚜렷하게 보이지만 백인과 격리는 일본인을 제외하고 대체로 낮게 나타나서 대부분의 아시아인들이 주류인 백인 사회에 잘 섞이고 있음을 보인다. 일본인은 흑인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한국인과 중국인들도 인도인과 필리핀인에 비해 흑인과 꽤 격리된 주거 패턴을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유사한 문화를 공유하는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사이에 격리가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인 집단 내에서 필리핀은 다른 집단과 큰 격리를 보였고, 인도인과 가장 잘 섞여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이지수가 계산과 해석이 쉽고 단순하여 사용하기 좋은 이점이 있지만, 거주지 분리 차원에서 인구 집단의 집중과 균집화 정도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Wong, 2010). 즉, 상이지수가 인구 집단의 거주지 집중 수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집단과의 분포 차이를 측정하는 수치인 것이다. 특정한 인구 집단의 거주지 집중은 그 기준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와 어떤 지리적 스케일에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집중이 나타나는 정도는 다를 것이다(Glasmeier and Farrigan, 2007). 하지만 주거 집중에 대한 정의를 어떤 기준에 의해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으며, 연구분석 단위에 의해 집중의 비율도 아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집단이 공동 주거 시설에 특정 인구 집단이 집중되는 경우에 센서스블록 수준의 자료에서는 쉽게 구별될 수 있겠지만, 보다 큰 단위인 센서스트랙 수준에서는 잘 포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너무 작은 수의 집중은 무시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처럼 대부분 연구에서 블록보다는 센서스트랙 수준을 선호한다.

표 2. 2010년 주요 인종 및 아시아인 집단 간의 상이지수

	흑인	인도인	중국인	필리핀인	일본인	한국인
백인	59.2	32.3	26.6	34.9	54.1	32.6
흑인	-	52.6	64.6	51.7	77.5	66.0
인도인	-	-	33.0	29.0	57.9	34.2
중국인	-	-	-	43.0	44.8	23.9
필리핀인	-	-	-	-	62.8	43.9
일본인	-	-	-	-	-	42.4
한국인	-	-	-	-	-	-

출처: US 센서스 통계 자료를 저자가 계산

집중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그 측정 기준에 대한 합의된 연구나 의견 일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최소요구치 간격에 의해 분류하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⁴⁾(Poulsen, Johnston, and Forrest, 2002; Allen and Turner, 2005; Skop, 2005). 물론 집중 측정의 기준이 되는 최소요구치가 클수록 집단의 주거 집중이 일시적이거나 우연적이 아니라 분명하게 발생하는 곳을 찾을 수 있지만, 그 값의 주변에 있는 집중 지역들은 무시되기 쉬울 것이다. 반면에 최소요구치가 너무 낮으면 집중은 전체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이다. 특정 집단의 거주지 집중의 기준이 되는 적절한 최소요구치를 찾아 분류하는 문제는 극히 어려우며, 그에 대한 방법이나 논의는 본 연구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 그렇지만 거주지 집중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특정 민족 집단의 거주지 분리와 공간적 고립 수준은 물론이고, 각 민족 집단의 공간적 동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Forrest, Poulsen, and Johnston, 2003). 동화이론에 따르면 소수민족 집단이 집중된 취락에 사는 비율은 그 집단이 보이는 문화적 동화의 상대적 지표이며, 아마 경제적 지위의 척도일 수 있다고 제의된다(Massey, 1985). 특정 소수민족 집단의 거주지가 집중되는 비율이 클수록 그 집단이 주류 사회에 동화되는 정도는 약할 것으로 여겨진다. 더욱이 특정 인구 집단이 집중하는 특성에 관한 발견 결과는 집중을 정의하는 기준에 관계가 없다는 점이다(Logan *et al.* 2002; Allen and Turner, 2005). 특정 소수민족 집단의 인구가 집중된 근린(센서스트랙)을 구별할 수 있다면 집단거주지, 민족공동체, 교외민족지 등 다양

하게 불려지는 그 집단의 집중 거주지역을 파악할 수 있고, 그 근린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인 민족 집단의 공간적 통합 정도를 분류하기 위해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를 이용한 최소요구치 기법을 채택하였다⁵⁾. 특정 집단의 입지계수가 5 이상(LQ≥5)인 경우 그 집단의 인구가 해당 근린(센서스트랙)에 전체 평균보다 5배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이다. 특정 소수민족 집단의 인구가 도시지역 전체 인구의 8% 미만인 경우, 그 집단의 입지계수가 5 이상인 근린에서 그 집단은 충분히 집중되었다고 하였다(Allen and Turner, 2005). 이 연구지역에서 아시아인 어느 민족 집단도 전체 지역 인구의 8%에 훨씬 미치지 못하므로 이 값을 이용하였다. 주거 집중 정도를 구별하기 사용한 기준과 혼주 정도에 따라 편의상 명명한 소수민족 지역 구분은 아래와 같으며, 그에 따른 개별 민족 집단의 집중 수준의 변화는 <표 3>에 있다.

집단거주지(ethnic enclave): 특정 아시아인 집단이 LQ≥5 값을 갖는 트랙

다민족근린: 특정 아시아인 집단이 1≤LQ<5 값을 갖고, LQ≥1 값을 갖는 흑인 포함 소수민족 집단이 하나 이상 나오는 트랙. 또는 특정 아시아인 집단이 LQ<1 값을 갖고, LQ≥1 값을 갖는 소수민족 집단이 둘 이상 갖는 트랙.

동화공동체: 특정 아시아인 집단이 LQ<1 값을 갖는 트랙이 LQ≥1 값을 갖는 소수민족 집단이 두 개 이상 나오는 트랙.

시타델(Citadel): 특정 아시아인 집단이 LQ<5 값을 갖고, LQ≥1 값을 갖는 다른 소수민족 집

표 3. 아시아인 집단의 혼주 정도, 2000, 2010년

	2000년					2010년				
	인도인	중국인	필리핀인	일본인	한국인	인도인	중국인	필리핀인	일본인	한국인
집단거주지	4.46 (2)	0.00 (0)	3.60 (2)	35.26 (8)	12.92 (4)	7.95 (3)	0 (0)	4.48 (2)	39.24 (10)	10.27 (3)
다민족근린	62.39 (88)	60.67 (96)	60.95 (87)	39.92 (69)	61.65 (94)	57.38 (86)	64.93 (95)	53.17 (73)	35.49 (63)	61.66 (98)
동화지역	24.07 (92)	31.62 (78)	29.05 (93)	21.66 (107)	19.36 (91)	25.01 (96)	14.81 (76)	24.75 (101)	14.83 (109)	18.24 (81)
시타델 (Citadel)	9.08 (35)	7.70 (43)	6.41 (35)	3.16 (33)	6.06 (26)	9.66 (36)	20.26 (50)	17.59 (45)	10.45 (39)	9.84 (3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괄호 안에 숫자는 특정 집단의 주거가 집중되어 있는 트랙 수를 말한다.
출처: US 센서스 통계 자료를 저자가 계산

단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트랙.

위에 사용한 측정 기준은 임의적이지만, 그 기준 경계가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과 주거 공간을 공유하는 정도에 대한 차이를 구분하는 의미를 주며, 지난 10년 동안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각 민족 집단의 거주지 분포 변화를 비교할 수 있다.

〈표 3〉을 보면 지난 10년 동안 아시아인 민족 집단의 공간적 통합의 전체적 패턴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개별 집단에서 약간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전체 인구에서 인구비율이 낮은 아시아인 민족 집단은 대체로 집중된 근린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예외는 일본인 집단에서 나타났다. 일본인들은 동일한 민족 집단이 사는 근린에 정착한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아주 높게 나타났고, 이 결과는 지도화나 상이지수 분석에서도 유사하게 볼 수 있었다. 지난 10년 동안 개별 민족이 집중된 집단거주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한국인은 예외로 이러한 근린에 사는 인구 비중이 감소하였다. 중국인은 상대적으로 인구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과 2010년 두 시점 모두에서 집단거주지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이민 역사가 가장 오래된 중국인들이 백인 사회에 잘 흡수되고 있는 증거일 수 있으며, 또한 이민 2, 3세대 젊은 층의 증가에 따른 인구통계적 변화의 결과인 지도 모른다.

아시아인 민족 집단은 대개 흑인을 포함하여 다

른 소수민족이 비교적 많이 살고 있는 다민족근린 지역에 가장 많은 인구가 정착하고 있지만 일본인만이 예외였다. 이 지역은 집중 수준도 낮고, 그 전체 인구에서의 개별 소수민족 집단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민족적 집단거주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개별 집단의 거주지가 전체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집중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 일본인이 낮은 값을 보이는 것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단거주지에 해당되는 근린이 많기 때문이었다.

동화지역과 시타델(citadel)은 주류 백인 근린 지역에서 민족 집단 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로 그 집단의 동화되는 정도를 보여준다. 이 분류에 속하는 근린(트랙) 수는 전체의 절반을 증가하지만 집단의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다. 2010년에는 이 두 집중 지역의 비중은 5개 민족 집단에서 모두 증가하여 점차로 주류 사회에 정착하는 아시아인 인구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 중에서 일본인들이 공간적 통합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아시아인 민족 집단의 근린

웨체스터 카운티의 아시아인 주요 민족 집단이 거주하는 근린의 특성을 구별하고, 상이한 민족 집단이 집중하는 근린을 비교하기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binominal logistic regression) 모

표 4. 변수의 종류와 내용

구분	변수 이름	설명
종속변수	소수민족 근린	소수민족 집단거주지와 시타텔 근린
독립변수	공가율	근린 지역의 빈집의 비율
	평균주택가격	주택구조와 주거환경을 반영하는 지수
	평균가구소득	사회경제적 성취를 보여주는 지수
	전문직 비율	전문직, 경영직, 기술직 등에 종사하는 고급 노동력의 비중
	백인 비율	근린에 거주하는 백인 인구 비중

델을 5개 주요 민족 집단에 개별적으로 적용하였다. 종속변수는 특정 집단의 거주지 분리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는 근린과 동화 정도가 가장 높은 근린으로 양분하였다. 앞서 입지계수를 기준으로 구별한 집중도가 가장 높은 집단거주지와 상대적으로 특정 집단의 인구 비중이 높은 다민족근린을 전자의 범주로 구분하고, 공간적 통합이 가장 잘 되거나 상대적으로 민족 집단의 비율이 낮은 시타텔 근린을 후자로 선택하였다. 주거격리 차원에서 이 두 범주 중간에 있는 동화공동체 근린은 해당 민족 집단의 인구가 꽤 많이 살고 있지만, 뚜렷한 근린 특성의 차이점을 찾기 위해서 제외되었다.

독립변수는 소수민족 거주지 분포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주택 및 사회경제적 속성에 관련된 수많은 변수들 가운데 자료 이용성과 통계적 유의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변수들을 선택하였다: 공가

율, 평균주택가격, 평균가구소득, 전문직 비율, 백인 비율(표 4).

<표 5>는 주요 아시아인 민족 집단의 거주지 분리가 근린의 주택 및 사회경제적 속성 변수의 분포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보여준다. 각 집단의 로지스틱 모델에서 주요 독립변수들이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지 않았다. 가장 주목할 것은 민족 집단이 집중하는 근린에서 전문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5개 민족 집단에서 모두 똑같았다. 이 결과는 교외에 정착하는 아시아인 집단의 상당수가 최근의 이민자로서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추고 고급 노동시장에 진입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일지 모른다. 한편, 다른 사회경제적 변수인 평균가구소득은 어느 집단의 거주지 분포와도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이 값이 통계적 유의성은 없지만 인도인을 제외한 다른 집단의 거주지 분리와는 부정적 관계를

표 5. 민족 집단거주지의 근린 특성 로지스틱 회귀 계수, 2010년

독립변수	인도인	중국인	필리핀인	일본인	한국인
공가율	-0.721** (0.162)	-0.809** (0.107)	-0.797 (0.151)	-0.979 (0.123)	-0.868 (0.113)
주택가격	-0.931** (0.035)	1.009 (0.023)	-0.998 (0.027)	-0.996 (0.025)	1.014 (0.024)
가구소득	1.186 (0.170)	-0.929 (0.122)	-0.842 (0.161)	-0.989 (0.128)	-0.895 (0.114)
전문직비율	1.140*** (0.131)	1.129*** (0.123)	1.129*** (0.035)	1.162*** (0.039)	1.143*** (0.032)
백인비율	-0.820*** (0.039)	-0.859*** (0.030)	-0.840*** (0.034)	-0.838*** (0.036)	-0.865*** (0.031)
카이제곱	63.45	58.34	68.53	57.78	50.18

괄호의 수는 표준오차.

** : p = 0.05, *** : P < 0.01 (양방향 검사)

보인 것은, 일반적으로 소수민족 고소득자들의 공간적 고립이 낮은 경향이 있다는 가설과 부합된다 (Glasmeier and Farrigan, 2007; Lareau, 2014). 높은 공가율은 인도인과 중국인 집단의 취약 분포에 부정적 영향을 보이지만, 다른 민족 집단에게 영향을 주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른 주택 변수인 평균주택가격은 인도인 경우 부정적 영향이 되고 있지만, 다른 집단과는 부정적 또는 긍정적 관계를 보였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결과는 통계적 중요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아시아계 민족 집단이 주택 시장의 특성에 각기 다른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제의한다. 백인 비율이 높은 근린에서 아시아인 민족 집단의 집중도가 모두 낮다는 것은 아시아인의 거주지 선택 결정은 분명히 주류 인구의 행동과는 유사하지 않음을 분명히 보인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이 논문은 뉴욕 시 교외의 웨체스터 카운티에 사는 5개의 주요 아시아인 민족 집단의 거주지 패턴을 지도를 통해 비교 분석하고, 이들 집단이 다수 백인의 공동체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분산되고 있는 정도를 상이지수와 최소요구치 기법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2000년부터 2010년 동안 각 아시아인 집단의 인구분포 변화 지도를 통해 아시아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거주지가 지역 내 광범위하게 분산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패턴은 동화된 이민자들이 교외의 백인 공동체에 대개 분산되면서 과거 도심 주변에서 출현하였던 거주지 분리 현상이 더 이상 교외 지역에서 지속되지 않기 때문인지 모른다. 또한 교외를 비롯한 대도시 전역에서 소수민족 이민자의 후손 젊은 층이 집단거주지를 떠나 교외 전역으로 이주하면서 나타나는 인구통계학적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시아인은 교외로 이주하면서 민족교외지와 같은 집중된 클러스터에 사는 경향이 높다는 주장은 이 지역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Li, 1998; Logan *et al.* 2002). 그렇지만 이처럼 공간적 패턴이 분산하는 증거는 사례 대상인 아시아인 민족 집단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

이 2000년 개별 민족 집단의 거주지 분포 지도를 자세히 조사하면 인구 비율이 매우 높은 집중된 클러스터가 일부 민족 집단에서 뚜렷하게 출현하였고, 2010년에도 이들 클러스터는 인구를 유지하거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개별 민족 집단의 인구 집중 클러스터가 시각적으로도 일치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상반된 증거 속에서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상이지수와 입지계수에 근거한 최소요구치 기법을 이용하여 개별 집단의 거주지 분리 정도를 측정하였다. 상이지수에 의해 아시아인 민족 집단은 흑인 거주지와는 다른 정착지를 분명히 선호하였지만, 백인과의 거주지 분리는 일본인을 제외하고는 아주 낮아 대부분의 아시아인들이 주류 백인의 거주지 분포를 닮아가고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아시아인 집단 간에도 격리 수준은 낮았지만 역시 일본인은 다른 아시아인 민족 집단의 정착지가 아닌 자신들 민족이 많은 사는 근린을 선호하였다(정수열, 2008; Logan *et al.* 2002). 한국인은 흑인을 제외한 어느 민족 집단과도 비교적 잘 섞여서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시아인 민족 집단의 거주지 분리가 대체로 약화되는 증거는 상이지수를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이 되었다. 그렇지만 이 상이지수가 거주지가 집중하는 클러스터의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최소요구치 기법으로 각 개별 집단의 공간적 통합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아시아인 민족 집단의 혼주 지역이 많아지면서 공간적 통합이 그 규모는 크지 않지만 분명히 증가하고 있다. 이 기간에 5개 민족 집단 각각에서 인구가 집중된 클러스터 비율은 대체로 낮았지만 그곳의 인구 비중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일본인의 집단 거주지는 다른 민족 집단에 비해 뚜렷하게 존재하였고,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면 아시아인 민족 집단 거주지의 공간적 패턴은 분산된 집중화로, 이 결과는 후기 산업화 시대에 격리와 집중화의 공간적 형태가 분산된 통합 형태로 변형된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Calthorpe, 1997).

끝으로 개별 민족 집단의 공간적 통합 수준과 근린 성격과의 관련성을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각 집단의 거주지 분리

수준이 근린의 주택과 사회경제적 속성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는 각기 달랐다. 대체로 아시아인 민족 집단이 집중하는 근린은 고급 노동력의 비중이 높은 곳이었으며, 백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었다. 근린의 주택 관련 변수들과 아시아인 거주지 분리 수준 사이의 관계는 불분명하였고, 일부는 거의 관계가 없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곳으로 정착하는 아시아인 상당수가 이미 상당한 지식과 자본을 갖춘 전문직 종사자로서 쾌적한 거주공간을 선호하는 추세가 컸거나 또는 개별 민족 집단 구성원 속성에서의 큰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일 수도 있을 것이다. 개별 모델의 상이한 결과에 대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민족 집단의 주거지 분포를 구조화하는 과정은 상이한 집단에 따라 주택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다르게 대처하면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O'Hare *et al.* 1994; Alba *et al.* 1999). 이것은 앞서 관찰한 아시아인 민족 집단에 따라 상이한 거주지 패턴과 함께 도시 내 소수민족 인구의 거주지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 아시아계 범주는 해체되고 민족 단위로 분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며, 또한 민족 집단 내의 소득이나 직업과 같은 범주로 구분할 필요성도 제기한다. 이러한 결과는 거주지 분리에 관한 여러 연구에서 어떤 집단에서 사실이 다른 집단에서는 사실이 아닐 경우가 많이 발견되고 있음을 재확인해 주는 것이다(Logan *et al.* 2002)

이미 언급하였듯이 민족 집단의 집중 클러스터를 찾기 위해 본 논문에서 사용한 방법은 임의적이고, 그 분류도 인구 척도에만 의존하였다. 특정 민족 집단의 공간적 집중 정도를 정확히 구별하는 기준을 찾는 문제는 어렵지만 연구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이들 클러스터에 입지한 해당 민족 기업 및 사회적, 종교적 기관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면 훨씬 정확한 민족의 거주 입지 선택 행위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물론 상업적 집중과 거주지 집중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도 없으며, 거주지 집중을 위해 최소로 필요로 하는 해당 민족 기관의 수준에 대한 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들 기관의 출현은 집중 클러스터의 문화적 속성을 구별하기 적합한 척도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 관찰한 아시아인 민족 집단의 분산된 집중화가 격리를 완화시켜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이한 집단별 격리가 심화되어 사회적 통합에 부정적 효과를 주는지 조사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소수민족의 취락이 광범위하게 분산되는 경우 사회적 통합은 분명히 커지겠지만 민족 집단의 집중 클러스터가 상대적으로 빈곤한 근린에 집중하는 경우 고용과 교육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며, 사회적 안정에도 부정적이 될 것이다(Stillwell and Phillips, 2006). 만일 그렇다면 그 효과를 줄이기 위해 거주지 분리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현상을 결정하는 요인을 탐구함으로써 거주지 분리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연관시켜 정책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Kato, 2006).

비록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민족적 거주지 분리로 야기되는 사회적 통합의 문제점이 거의 없으므로 민족적 거주지 분리에 대한 연구는 없지만, 직업이나 교육 수준의 차이로 발생하는 거주지 분리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한주연, 1989; 최은영, 2004; 정수열, 2015). 오늘날 우리나라도 외국인 거주자들이 크게 증가하여 이들의 집단 거주 지역이 수도권 지역에 출현하면서 이들의 거주지 분리 현상에 대한 연구가 있다(박운환, 2010). 따라서 이 논문에서 살펴본 소수민족 거주지 분리 현상에 대한 분석을 우리나라의 외국인 이민 인구의 거주지 분포 연구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

- 1) 1965년 개정된 이민법은 이전의 출신국적에 따른 할당제를 폐지하고, 가족 단합에 우선권을 줘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에게 우선 순위를 주었고, 전문 기술이나 특수 훈련을 받은 개인에게 우선권을 주었다. 이 개정법이 한국은 물론 아시아 상당 지역으로부터 이민에 커다란 영향을 주면서 미국 이민 경관의 윤곽을 극적으로 바꾸게 되었다.
- 2) 2000년 이전 센서스 통계에서는 아시아계인과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섬 주민을 묶어서 한 범주로 구분하였지만 2000년 통계부터는 아시아인이 독립된 범주로 구분하여 조사되어 아시아인 국적별 자료가 이용 가능해지면서 이 기간이 선택되었다.
- 3) 상이지수는 다음 수식에 의해 계산된다.

$$D = \frac{1}{2} \sum_{j=1}^J \left| \frac{x_j}{X} - \frac{y_j}{Y} \right|$$

x_j, y_j 각각 j (센서스 트랙)에 살고 있는 X, Y 그룹 인구의 수를 언급한다. X, Y 는 각각 도시에 살고 있는 X, Y 그룹 인구의 전체 수를 언급한다.

- 4) 어떤 연구는 연구집단의 인구 규모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다. 연구집단의 인구가 도시 전체 인구의 8% 이상인 경우 트랙의 입지계수가 5이상, 즉 해당 집단의 인구비율이 트랙 전체 인구의 40% 이상인 경우를 집중이라고 한다. 한편, 연구집단의 인구가 8% 이하인 경우에도 입지계수 5이상인 트랙을 모두 주거 집중으로 정의한다(Allen and Turner, 2005). 다른 연구에서는 도시 전체 비율보다 10% 이상인 트랙 주변에 전체 비율보다 5% 이상인 트랙이 있는 경우 인종적 클러스터라 하였다. 어떤 연구는 전체 도시 비율이 거의 2배인 우편번호 지역을 집단거주지로 정의하였다. 또 다른 연구는 도시 지역 전체 비율의 3배를 보이는 트랙을 집중 발생으로 정의하였다.
- 5) 입지계수(LQ)는 어떤 민족 집단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개별 지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하여, $LQ > 1$ 인 경우 그 집단의 인구가 그 개별 지역에서 과잉으로 나타나고, $LQ < 1$ 이면 과소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LQ = (x_i / \sum X_i) \div (y_i / \sum Y_i)$$

x_i 는 한 트랙 내에서 사는 한국인 인구의 수이다. y_i 는 그 트랙의 전체 인구수가 되며, $\sum X_i$ 는 도시에 사는 전체 한국인 인구수가 된다. $\sum Y_i$ 는 그 도시의 전체 인구수를 의미한다.

문헌

박윤환, 2010, 수도권 지역 외국인들의 거주지 분리에 대한 연구, 행정논총, 48(4), 429-453.

정수열, 2008, 인종·민족별 거주지 분화 이론에 대한 고찰과 평가 -미국 시카고 아시아인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43(4), 511-525.

정수열, 2015,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도시 내 계층별 거주지 분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8(1), 1-16.

최은영, 2004, 서울의 거주지 분리 심화와 교육환경의 차별화,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주연, 1989, 서울시의 직업별 거주지 분리현상에 관한 연구, 지리교육논집, 21, 31-70.

Alba, R. D. and Logan, J. R., 1991, Variations

on two themes: racial and ethnic patterns in the attainment of suburban residence, *Demography*, 28(3), 431-453.

Alba, R. D., Logan, J. R., Stults, B. J., Marzan, G. and Zhang, W., 1999, Immigrant groups in the suburbs: a reexamination of suburbanization and spatial assimil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4(3), 446-460.

Allen, J. P. and Turner, E., 1996, Spatial patterns of immigrant assimilation, *Professional Geographer*, 48(2), 140-155.

Allen, J. P. and Turner, E., 2005, Ethnic residential concentration in United States metropolitan areas, *The Geographical Review*, 95(2), 267-285.

Barnes, J. S. and Bennett, C. E., 2002, *The Asian Population: 2000*, Washington, D.C.: U.S. Census Bureau.

Brown, L. A. and Chung, Su-Yuel, 2008, Market-led pluralism: rethinking our understanding of racial/ethnic spatial patterning in U.S. citie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98(1), 180-212.

Burgess, E. W., 1925, The Growth of the City: An Introduction to a Research Project, pp. 47-62 in *The City*, edited by Park, R. E., Burgess, E. W., and McKenzie, R. 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Calthorpe, P., 1997, The pedestrian pocket, in LeGates, T. R. and Stout, F. (eds.), *The City Reader*, Routledge, London, 468-474.

Charles, E. C., 2000, Neighborhood racial-composition preferences: evidence from a multiethnic Metropolis, *Social Problems*, 47(3), 379-407.

Frazier, J. W. and Margai, F. M. (eds.), 2010, *Multicultural Geographies: The Changing Racial/Ethnic Patterns of the United State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Albany.

Frazier, J. W., 2010, Asians in America: some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atterns, in Frazier, J. W., and Margai, F. M. (eds.), *Multicultural*

- Geographies: The Changing Racial/Ethnic Patterns of the United State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Albany, 79-99.
- Friedman, S., Singer, A., Price, M. and Cheung, I., 2005, Race, immigrants, and residence: a new racial geography of Washington, D.C., *Geographical Review*, 95: 2, pp. 210-230.
- Glasmeier, A. K. and Farrigan, T. I., 2007, Landscapes of inequality: spatial segregation, economic isolation, and contingent residential locations, *Economic Geography*, 83(3), 221-229.
- Hoeffel, E. M., Rastogi, S., Kim, M. O. and Shahid, H., 2012, *The Asian Population: 2010*, U.S. Census Bureau, Washington, D.C.
- Houston, D., 2010, Changing ethnic segregation and housing disadvantage in Dundee, *Scottish Geographical Journal*, 126(4), 285-298.
- Iceland, J. and Sharp, G., 2013, White residential segregation in U.S. metropolitan areas: conceptual issues, patterns, and trends from the U.S. census, 1980 to 2010,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32, 663-686.
- Iceland, J., 2004, Beyond black and white: residential segregation in multiethnic America, *Social Science Research*, 33(2), 248-271.
- Iceland, J., Weinberg, D. H. and Steinmetz, E., 2002, *Racial and Ethnic Residential Segregation in the United States: 1980-2000*, U.S. Census Bureau, Washington, D.C.
- Johnston, R., Poulsen, M. and Forrest, J., 2008, Asians, Pacific Islanders and ethnoburbs in Auckland, New Zealand, *Geographical Review*, 98(2), 214-241.
- Kato, Y., 2006, Planning and social diversity: residential segregation in American new towns, *Urban Studies*, 43(12), 2285-2299.
- Lareau, A. and Goyette, K., 2014, *Choosing Homes, Choosing Schools: Residential Segregation and the Search for a Good School*,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Li, W., 1998, Anatomy of a new ethnic settlement: the Chinese ethnoburb in Los Angeles, *Urban Studies*, 35(3), 479-501.
- Logan, J. R. and Molotch, H. L., 1987, *Urban Fortunes: The Political Economy of Plac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 Logan, J. R., Alba, R. D. and Zhang, W. Q., 2002, Immigrant enclaves and ethnic communities in New York and Los Angel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7(2), 299-322.
- Massey, D., 1985, Ethnic Residential segregation: a theoretical synthesis and empirical review,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69, 315-50.
- Massey, D. S. and Denton, N. A., 1987, Trends in the residential segregation of blacks, Hispanics, and Asians: 1970-80,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802-825.
- Munoz, S. A., 2010, Geographies of faith: the differing residential patterns of the Indian-Hindu, Indian-Sikh and Indian-Muslim populations of Dundee and Glasgow, *Population, Space and Place*, 16(4), 269-285.
- O'Hare, W. P., Frey, W. H. and Fost, D., 1994, Asians in the suburbs, *American Demographics*, May, 32-38.
- Peach C., 2002, Social geography: new religions and ethnoburbs contrasts with cultural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2(2), 252-260.
- Phillips, D., Cathy, D. and Ratcliffe, P., 2007, British Asian narratives of urban space,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2, 217-234.
- Reardon, S. and O'Sullivan, D., 2004, Measures of spatial segregation, *Sociological Methodology*, 34, 121-162.
- Scott, T., 1995, America's most educated places, *American Demographics*, 17(10), 44-51.
- Skop, E. and Li Wei, 2005, Asians in America's suburbs: patterns and consequences of settlement, *Geographical Review*, 95: 2, 167-188.
- Stillwell, J. and Phillips, D., 2006, Diversity and

- change: understanding the ethnic geographies of Leeds,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2, 1131-1152.
- U.S. Census Bureau, 2000, 2010, *Census of Population and Housing*,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C.
-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12, *Yearbook of Immigration Statistics: 2011*,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Office of Immigration Statistics, Washington, D.C.
- Velez, W., Martin, M. E. and Mendez, E., 2009, Segregation patterns in metro areas: Latinos and African Americans in 2000, *Centro Journal*, 21(1), 119-137.
- Wong, D. W. S., 2010, A comparison of traditional and spatial measures of segregation: some empirical findings, in Frazier, J. W. and Margai, F. M. (eds.), 2010, *Multicultural Geographies: The Changing Racial/Ethnic Patterns of the United State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Albany.
- **교신** : 백영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지리교육과, 전화: 063-270-2767, 이메일: ykbeck@jbnu.ac.kr
- Correspondence** : Yeong Ki Beck,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567, Baekje-dae-ro, Deokjin-gu, Jeonju-si, Jeolla-buk-do, Phone: 82-63-270-2767, E-mail: ykbeck@jbnu.ac.kr
- (접수: 2016.11.05, 수정: 2016.11.22, 채택: 2016.11.25)